

KOSBI 중소기업 포커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하도급 체계개편과 대중소기업 협력방안

책임작성 | 백훈 연구위원 (02-707-9838, hbaek@kosbi.re.kr)

※ KOSBI 중소기업 포커스는 중소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osb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목 차

1. 서 론
2.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공급가치사슬 변화
3. 국내 대중소기업 공급가치사슬의 특성
4. 코로나19 사태의 하도급기업 실태조사 결과
5.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방안

| 요약

- 코로나19로 인해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기존 글로벌 가치사슬이 지역화, 블록화되어 글로벌 가치공급사슬체계로 전환
 - 개도국의 성장과 코로나19 사태 등의 여파로 기존 개방형 글로벌 공급가치사슬체계 (GVC)에서 자국 중심의 폐쇄형 신보호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
 - 폐쇄형 신보호주의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수요와 공급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선진국 및 개도국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 선진국들이 가치사슬 변화에 핵심산업은 내재화하고, 저기술 상품은 기존 글로벌 가치사슬 활용하는 이원적 전략을 추구함에 따라 수출중심 우리경제에는 또 다른 위협으로 작용
- 코로나19 사태는 수급기업에 매출의 80%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하도급기업의 개편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대기업은 내부혁신만으로 시장내 경쟁우위 확보의 한계성을 인지하고 공급처인 1차 하도급기업과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고, 상호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공유함으로써 가치사슬 상에서 더 높은 부가가치 실현하려는 움직임 등장

- 따라서 대기업과의 정보교류, 기술협력이 활발한 1차 하도급기업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생겨나고 있으며 경영 변화와 투자활동 증가 예상
 - 그러나 2차 이하의 하도급기업은 물량 축소, 원자재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래 산업과 수요자 니즈 변화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도 못한 상황
- 하도급기업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향후 경영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는 있으나 다양한 애로로 인한 위기의식도 존재
- 향후 시장변화에 대해 가격경쟁 심화, 시장 내 퇴출기업 증가 등 시장구조조정 발생과 기술경쟁 강도의 심화를 우려
- 특히 2차 이하의 하도급기업의 경우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은 매우 취약
-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대해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조차 못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의 기업 비중이 절반 이상
 -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으로 수급기업의 시장대처 정보제공, 생산시설의 스마트화 등을 생각하고는 있으나 체계적 추진은 미흡
-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 경쟁력을 지속 및 강화하는 한편, 하도급 기업 간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고도화가 필요
- 시장지향형 기술개발, 지역공급가치사슬(LVC) 확산 대응을 위한 거점형 대·중소기업 협력 기반 마련, 생산체계의 정보화 도입, 대기업 내부역량 개방 확산을 위한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의 협력방안 모색 필요

1. 서론

■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되었던 우리경제는 지난 3/4분기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최근 생활 속 감염이라는 위기에 직면

- 코로나19 사태 확산은 각국의 출입국제한 등 글로벌 가치사슬 붕괴, 경제활동 축소에 따른 소비감소로 내수시장 침체 등 이중고 발생

- * 기존까지 공급체인 1차 벤더 위주로 설계돼 온 바 2~3차 벤더 리스크라는 사각지대 노출로 공급중단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글로벌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value-added output)의 경우 3%수축(자료: Oxford Economics / Baker McKenzie, 2020)

- *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4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3% 감소(자료 : 2020년 연간지출가계동향조사, 통계청)

- 우리나라는 국민적 노력과 정부의 선제적 대응으로 지난 3분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로 돌아서며, 보건의료, 주력산업인 반도체 등이 수출 호조세로 보다 빠른 경제회복의 기대감 제공

[그림 1] 2020년 상반기와 3/4분기 대외적 경제상황



[분기별 설비투자 및 순수출]

[분기별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지수]

주 : 실질 GDP 속보치는 분기 최종월의 일부 실적치 자료를 이용하지 못하여 추후 공표될 GDP 잠정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 한국은행(2020), "2020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동향발표

- 하지만, 최근 국민적 피로감 누적되고 생활 속 감염 확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경제회복의 불안감 상존

- 더욱이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하도급기업에게는 금번 코로나19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위기로, 향후 대응조치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
 - 저기술 위주 2차 하도급 기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지역중심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기대감이 감돌았으나, 대기업의 생산중단 및 축소, 수출시장의 붕괴 등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
 - 더욱이, 대기업의 향후 시장 및 기술전략에 대한 정보조치 모르는 상황으로 당면한 위기대응과 대기업의 전략 파악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
- 본고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공급가치사슬(GVC)의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하도급기업의 대응 수준을 확인하는 한편, 하도급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함¹⁾

2.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공급가치사슬 변화

- 코로나19 사태 충격으로 세계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3배 가파른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
 - 지금까지의 경제위기는 통화정책, 국제유가 급변동 등 경제적 외생 변수였다면, 코로나19는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새로운 변수로 향후 추가적 발생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상존
 - 세계은행은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초 2.5%에서 7.7%p감소한 -5.2%로 발표
- 소비투자수출 등 글로벌 경제에 막대한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선진국 뿐 아닌 아시아 국가까지 영향 정도가 심각
 - 미국은 서비스업 타격, 산업생산 감소 등으로 -6.1%, 유로존은 관광업 충격과 글로벌 벨류체인 붕괴로 -9.1%이라는 경제성장 전망을 예측
 - 선진국의 생산 및 소비감소 영향은 동아태는 관광업 위축(태국필리핀), 저유가(말레이) 등으로 경제성장이 0.5%정도로 이마저도 중국을 제외하면 -1.2%로 예상(자료: 세계은행 2020.06)

1) 본 보고서는 백훈(2020),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역량 개방을 통한 2·3차 협력 네트워크 확산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정책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내용을 재구성

■ 개방형 글로벌 공급가치사슬(GVC)체계를 강조하던 선진국이 자국 중심의 폐쇄형 신보호주의로 변화

- 글로벌 공급가치사슬은 “국경없는 시장”으로 성장하며, 생산원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아시아 지역의 개도국의 급격한 성장 견인
-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선진국의 실업률 증가, 내수침체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선진국은 자국 보호라는 명분 아래 폐쇄형 보호무역주의로 변화

■ 또한, 폐쇄형 보호주의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수요와 공급에 충격을 발생시켜, 선진국 및 개도국의 성장에 족쇄로 작용

- (글로벌 수요충격) 경제적 활동 제약에 따른 수요 감소로 생산 감소·불확실성증대·자금조달비용 상승 등을 초래, 상품과 서비스가 감소하고 투자도 감소
- (글로벌 공급충격)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생산시설 중단, 국경봉쇄조치 등 이동제한 등에 따른 해외 부품소재 공급차질 및 해외 거점 생산시설과 본사 생산·기획부서 등과의 연계망 단절 등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차질발생

〈표 1〉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수요·공급 충격 결과

구분	내용
글로벌 수요충격	상품과 서비스 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수요 감소에 따른 생산 감소·불확실성 증대·자금조달비용 상승 등으로 투자도 감소
글로벌 공급충격	이동제한·감염·학교폐쇄 등 노동공급 감소, 직장폐쇄·격리 등으로 기술·지식 전파가 지연으로 장기적 생산성도 저하

⇒ · 미국·유로존·중국 성장률이 동시에 1%p 하락시, 스펀오버 효과로 인한 신흥·개도국(중국 제외) 성장률 하락폭은 1.3%p로 추정
 · 제조업농업보다는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충격이 더 크고, 노동집약적 산업 비중이 높은 저소득국일수록 더 취약

자료 : 기획재정부, '20.6월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2020.06, 재정리

■ 유수의 석학들은 코로나19는 기존 글로벌 공급가치사슬(GVC)체계의 붕괴를 촉발하고 향후 글로벌 공급가치사슬(RVC)변화 가능성 제기

〈표 2〉 세계 석학이 전망하는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

구분	내용
마크카니 (전 영국 중앙은행 총재)	코로나19 사태 위기는 세계 경제의 파편화 가속화
장 폴 로드리그 (미 호프스트라 대학 교수)	글로벌 경제의 이중구조화를 구축하게 될 것이며 생필품은 국산화와 첨단제품은 글로벌화를 유지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부 장관)	시대착오적 성곽시대(城廓時代) 사고를 강조하며, 코로나19 사태의 백신개발 전까지는 세계경제가 지역블록화 또는 무역 '봉쇄령 (Lockdown)'으로 국가 간 무역장벽이 다시 부활
닉 비야스(Nick Vyas) (USC 대학교수)	글로벌 제조업 생산체계가 회복세로 돌아와도 차이나 디커플링, 수요자에 근접한 on-shore 및 near-shore현상, 공급체인 단위의 분산화로 '짧아지고 넓어지는 GVC'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

자료 : 서울신문(2020.5) “ 세계 석학들이 보는 ‘포스트 코로나’의 삶”,
산업자원부(2020.5), “코로나 이후의 변화” 해외주요석학 등의 발언(국내외 언론 인터뷰 등)

- 이런 변화에 선진국들은 핵심산업은 내부화하고, 기술력 등에 제약 없는 상품은 기존 글로벌 공급가치사슬 활용하는 이원적 전략 추진

〈표 3〉 선진국의 글로벌 공급가치사슬(GVC) 다변화 정책기조

부문	사례 내역
미국	리쇼어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인소싱 법제화를 통한 국내기업 우대, 인력고용 보조금지원, 코로나19 지원금 중 100억 달러 활용 투자보증 등 정부 인센티브 제공 - 301조(불공정무역), 232조(국가안보), 201조(수입금증) 등 각종수입제한 조치를 통해 리쇼어링과 외국인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 시행 - 세제개편(법인세인하, 송환세 면제), 규제완화(2-for-1 원칙)
	핵심필수 산업국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보호장비(PPE) 국내증산 및 주요 의료제품 리쇼어링 지원 - 미국산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에 근거하여 미국산 원료 구매 시 비용이 25%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외국산 원료 구매를 허용('20.8) - 반도체 산업의 국내 투자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미국 및 해외 반도체 기업의 제조공장 국내 유치를 위한 매칭펀드 조성 등)
	탈중국 공급망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20.7)을 통해 자동차, 철강 등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역내 공급망 강화의 지역 글로벌 공급가치사슬 구축(통상협정 추진) - 향후 10년간 3,500억 달러 규모의 산업 지원 자금 투입하는 중국 대응 법안(America LEADS Act)*발의 <p>* ▲개인보호장비(PPE), 반도체 등 핵심 기술에 대한 국내 공급망 강화 ▲제조 숙련노동양성 ▲중국의 역탈적 교역행위 맞서는 인도-태평양 동맹 강화 등이 주요 골자</p>

부문	사례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주요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경제 번영 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를 제안 - 미국산 기술·장비·부품으로 제조한 반도체의 對화웨이 수출제한
일본	국내공급망 지원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국가 등에 생산거점의 집중도가 높은 품목이나 국민보건에 중요한 제품·부자재를 대상으로 자국내 생산설비 도입 지원 * 지원대상 기업의 자국 내 공장시설(건물 및 설비), 물류시설(창고·배송센터) 및 이에 관련된 시스템(소프트웨어 등)의 취득비용 지원 (업체당 지원한도 150억엔/ 기업규모·유형별 차등 적용(소요금액의 1/2~3/4))
	해외공급망 다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거점의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ASEAN으로의 공급망 재편을 위해 아세안 내 생산설비 도입과 컨설팅 비용을 지원 - 지난 7월, 해외공급망 다변화 지원기업 30개사 선정

자료 : 1) 심혜정(2020.11)코로나 공존시대 글로벌 공복망 안정화, 한국무역협회, 재가공
 2) 미즈호정보종합연구소/ 일본무역진흥기구

■ 글로벌 공급가치사슬체계(RVC) 대두로 대중소기업의 협력적 네트워킹 확장형 모델기반인 5세대 오픈이노베이션²⁾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

- 자국중심의 지역단위 공급가치사슬 구조로의 변화는 해외 진출했던 기업이 자국으로 회귀하는 리쇼어링 현상과 소규모 지역·주변국 단위의 블록화된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공급가치사슬체계(RVC)가 등장하는 계기를 마련

〈표 4〉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사슬 변경 사례

구분	내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M(General Motors)은 멕시코생산 공장을 철수하고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 공장 확대를 통해 생산시설 추가에 따른 인력증대 뿐아니라 하도급 연계기업의 일자리 창출 - 중국으로 진출했던 애플(Apple) 또한 10억 달러 규모의 신사옥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설립하고 관련산업 연계 최대 20,000개 일자리 창출 기대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요타(Toyota)는 2016년 미국 인디애나주 후지중공업 공장에서 위탁생산하던 중형차 캠리 물량을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공장 이전, 연간 10만대 분량을 일본에서 추가 생산 - 닛산(Nissan)은 북미 지역에서 연간 10만대씩 생산하던 SUV 로그의 생산 거점을 일본 규슈 공장으로 이전

자료 : Fox Business, GM Expects To Move 600 Supplier Jobs From Mexico to Texas, 16 June, 2017.

2) 네트워킹 확장성 모델(expert systems and simulation modelling) : 혁신 프로세스는 네트워킹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기능 간(cross-functional) 협력 및 효율적 통합을 강조하면서 실시간 정보처리과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품 개발프로세스 달성, Rothwell(1992). Successful industrial innovation: Critical factors for the 1990's, R& D Management, 재가공

- 국제적 경제구조의 변화는 네트워크 중심 기능간(cross-functional) 협력 및 효율적 통합이 강조되며 대기업과 하도급기업과의 상호 혁신프로세스를 진행해야만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계기를 마련

3. 국내 대·중소기업 공급가치사슬의 특성

■ 글로벌 공급가치사슬의 변화는 국내 중소기업의 업종간 양극화 및 하도급기업에게는 기존 대기업과의 거래관계의 변화를 가속화

-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비대면관련 산업과 의료업종 등의 하도급기업은 성장하고 있지만, 전통적 대면산업과 전통제조업은 성장세 하락
- 거래관계에서는 하도급 기업간 정보 격차로 1차는 글로벌 공급사슬변화에 대응한 업종전환, 상품 다변화가 활발하나, 2차 등은 정보부족으로 대응조차 못하는 실정

■ 국내 하도급기업 비중은 45.6%, 수급기업에 대한 매출액 의존률은 80%이상

- 수위탁기업 비중은 지난 10년간 평균 45.6%이며, 이중 소기업은 45%, 중기업은 52.5%를 차지
- 수급기업 매출액 의존도는 2009년 76.7%에서 2018년 81.8%로 증가하였고, 소기업은 76.9%에서 85.7%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매출액 의존도 차지

[그림 2] 수급기업 매출액 대비 의존도



[수급기업 매출액 대비 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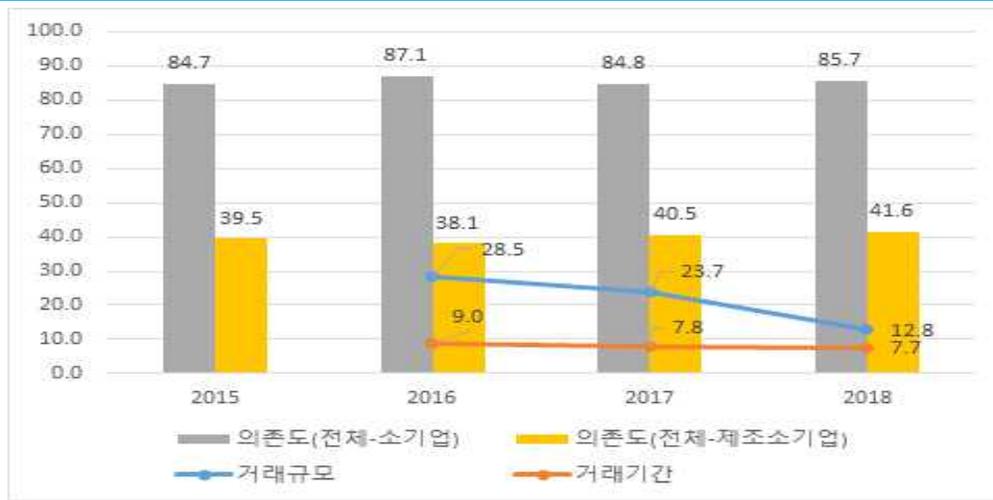
[중소제조업 매출액 대비 의존도]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20), 『중소기업실태조사』, 각 년도 재가공

■ 이 결과 정보부족으로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전통 제조 하도급 기업 간 시장경쟁이 더욱 극심한 상황

- 전통 제조 소기업 제품은 상위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의 소모성 제품 및 부분품에 안주해 있어 소비주체가 한정
- 전통제조업의 한정된 수요처는 제품을 생산 기업들 간의 경쟁격화를 발생시키고, 극심한 가격경쟁으로 시장내 출혈경쟁이 가속화

[그림 3] 소기업의 거래규모, 거래기간, 의존도 비교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2020), 『중소기업실태조사』, 각 년도
 주 : 2016년부터는 의존도(납품액·매출액)-수급기업 매출액 대비 (%)

■ 대기업 거래기업³⁾인 2차 등 하도급기업은 대기업 생산거점 중심으로 집적화되어 지역 내 경쟁 또한 극심한 상황

- 하도급기업의 지역 밀집도는 대기업 생산시설 주변에 집중
 - * (1차 하도급기업 지역밀집도) 기계·자동차·조선업- 경남(21.4%), 경기(17.7%), 부산(14.5%)등, 전기·전자-경기(44.1%), 경북(8.7%), 충북(7.8%) 등 화학·비금속·금속-경기(26.3%), 경남((15.1%), 부산(9.5%)등
 - * (2차 등 하도급기업 지역밀집도) 기계·자동차·조선업- 경남(20.0%), 부산(17.5%), 경기(15.4%)등 전기·전자-경기(43.7%), 인천(8.8%), 경북(6.8%) 등 화학·비금속·금속-경기(31.3%), 부산(10.0%), 서울(8.9%) 등

3) 총 9,534개사를 전기·전자(2,557개사), 기계·자동차·조선(5,392개사), 화학·비금속·금속 제조업(1,585개사)의 대기업 3개 대표업종을 한국표준산업으로 분류

〈표 5〉 대기업 거래기업 업태별 가치사슬 구조 비중(상위 5위)

구분	1차 하도급			2차 등 하도급		
	KSIC 2단위·제조업 KSIC 5단위	개사	비중 (%)	KSIC 2단위·제조업 KSIC 5단위	개사	비중 (%)
기계·자동차·조선 (대기업 23개사)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949	25.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61	22.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674	17.7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63	16.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541	14.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71	10.8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354	9.3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22	7.7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85	4.9	1차 금속 제조업	100	6.3
전기·전자 (대기업 15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61	2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99	20.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46	15.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31	13.8
	전기장비 제조업	230	14.3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20	12.6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46	9.1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90	9.5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32	8.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5	8.9
화학·비금속·금속 (대기업 11개)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90	16.8	도매 및 상품 중개업	75	16.7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57	13.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58	1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05	9.3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52	11.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88	7.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8	8.4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67	5.9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35	7.8

자료 : 중소기업연구원(2020), 『대기업거래기업 하도급 거래 기업조사』

■ 지난 10년간 하도급기업의 매출 및 고용 성과는 증가추세로 1차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2차 등은 감소세로 상대적으로 격차가 발생

- 하도급기업들은 비슷하게 성장하나, 2015년을 기점으로 2차 등이 1차에 비해 더욱 감소하며, 격차 발생

*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비교(2011년~2018년) 1차 하도급기업 2.17%↑, 2차 하도급기업 -1.96% 감소

- 고용성장 역시 하도급기업 간 연평균 증가율은 1차가 1.50%, 2차가 0.66%로 2차 하도급기업의 열위

* 1차 및 2차 등 하도급기업 고용증가율 비교(2016년 대비 2018년) : 1차하도급기업 (16년) -1.3% → (18년) -2.6% , 2차 하도급기업 (16년) -2.6% → (18년) -3.0%

■ 더욱이 전속성이 높은 1차 비해 2차 등 하도급 기업은 대기업의 대외적 악재 변화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

- 산업 전반의 위기인 조선업과 자동차판매 불황 등의 위기시 1차 하도급기업에 비해 2차 등 하도급기업의 피해정도가 보다 심각
- 기업당 평균 부가세 신고금액⁴⁾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과 이후에 대해 2020년 2/4분기를 기준으로 비교시 1차는 작년 동기 약 -7.27% 감소한 반면 2차는 -21.3%로 약 3배정도 악화된 것으로 확인

[그림 4] 대기업 거래관계에 따른 경기변동의 영향도



[1차 2차 등 매출 비교]

[1차 2차 등 고용 비교]



[코로나19 사태 부가세 신고금액 비교]

자료 : 국세청, 부가세 신고금액 각 년도

주 : 기업당 평균 부가세 신고금액(국세청 부가세 신고자료-KED)비교

4) 국세청 개별 세무서에 신고되고 있는 분기별 부가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기업데이터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Key값으로 대입하여 각사의 전년 대비 2020년의 부가세 정보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값을 활용한 결과치

4. 코로나19 사태의 하도급기업 실태조사 결과⁵⁾

■ 현 시장 상황 및 전망에 대해 하도급기업들은 어려움은 존재하나,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일부 업종은 기대 심리마저 저조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현재 어려움은 존재하나 향후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57.3%인 상황이나, 기계·자동차·조선업종 2차 하도급기업은 시장침체에 부정적인 전망이 높은 상황

[그림 5] 하도급기업의 코로나19 사태 경기체감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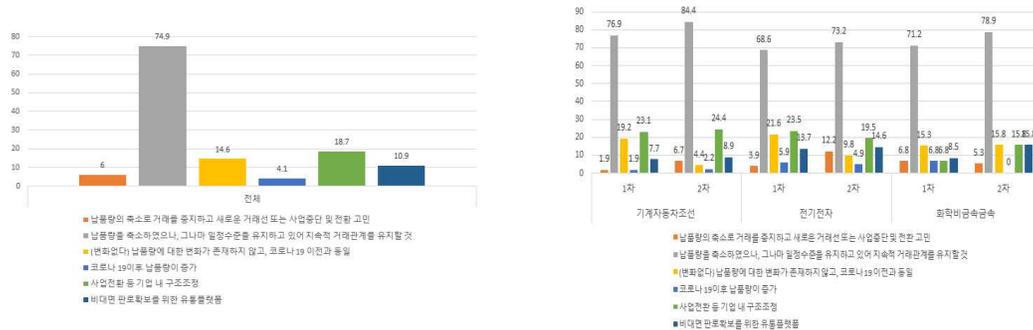


[하도급기업의 코로나19 사태 경기체감 및 전망]

[거래업종별 코로나19 사태 경기체감 및 전망]

■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기업과의 거래관계 영향에 대해 74.9%는 변화정도에 영향이 적은 상황인 것으로 확인

[그림 6]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거래관계변화



[하도급기업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거래관계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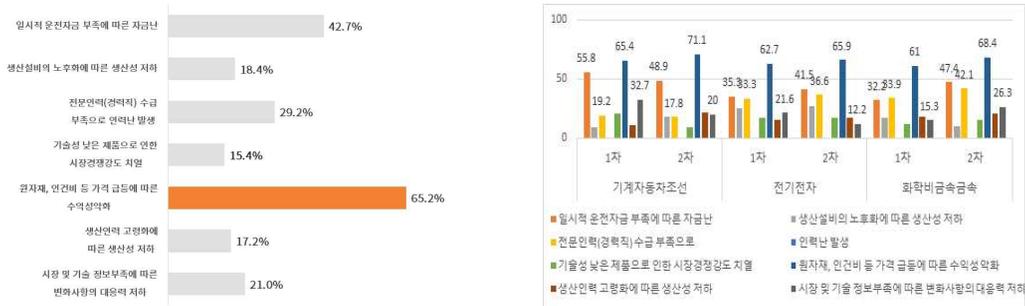
[거래업종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거래관계변화]

5) 전체 9,531개사의 모집단 중 267개사에 대해 실태조사 확인 결과 1차 하도급기업 162개사(60.7%), 2차 등 하도급기업 105개사(39.3%)의 응답률 기록

■ 하도급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기업경영의 수익성악화 및 일시적 운전자금 부족 등 호소

- 경영애로요인 중 원자재, 인건비 등 가격 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65.2%이며, 일시적 운전자금 부족에 따른 자금난이 42.7% 순
- 이외 전문인력 인력난이 다음 순이나 2차 하도급기업 중 기계·자동차·조선업종에서는 시장 및 기술정보의 시장변화에 대응력부족이 더욱 심각

[그림 7]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 애로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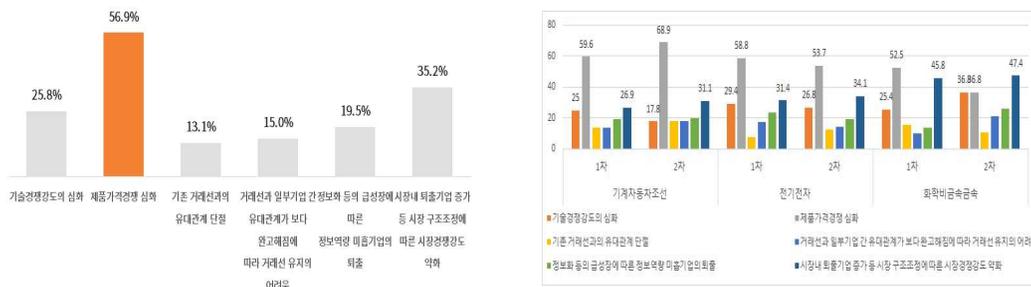
[하도급기업의 경영애로요인]

[거래업종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애로요인]

■ 향후 시장변화에 대해 가격경쟁 심화, 시장 내 퇴출기업 증가 등 시장구조조정 발생과 기술경쟁 강도의 심화를 우려

- 향후 시장변화에 대해 가격경쟁이 보다 심화가 56.9%, 시장 내 퇴출기업 증가 등 시장구조조정에 따른 시장경쟁강도의 약화가 35.2%, 기술경쟁강도의 심화 25.8% 순이며, 화학·비금속·금속 2차에서는 시장 내 퇴출기업 증가할 것을 우려

[그림 8]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향후 시장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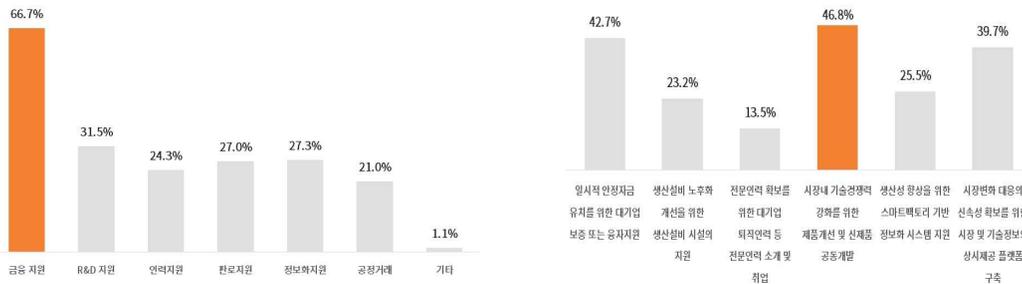
[하도급기업의 향후시장변화]

[업종별 향후시장 변화]

■ 코로나19 사태로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은 자금지원인 반면, 대기업 지원은 기술지원 및 정보 제공 요구

- 정부지원으로는 금융지원 66.7%, 기술지원 31.5%, 정보화지원 27.3%, 판로지원 27%, 인력지원 24.3% 순으로 최근 정보화지원 및 판로지원의 중요성 증가
- 대기업 지원으로는 시장 내 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제품개선 및 신제품 공동개발이 46.8%, 시장변화 대응의 신속한 대응을 추구할 수 있는 시장 및 기술정보제공의 상시제공을 위한 정보플랫폼 구축이 39.7%로 확인

[그림 9]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향후 시장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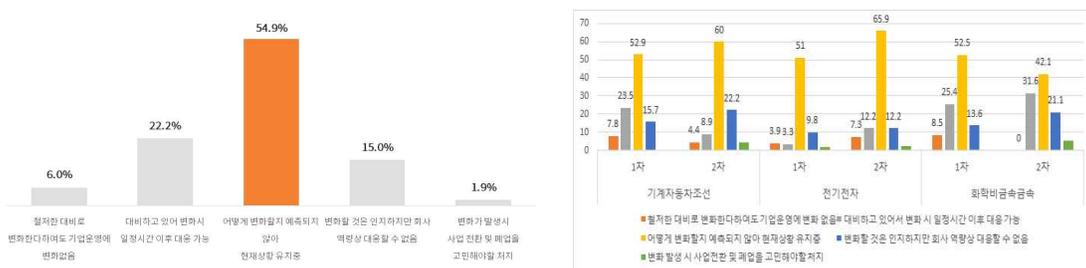
[하도급기업의 정부지원 요청사항]

[하도급기업의 대기업 지원요청사항]

■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정도는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조차 못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의 기업 비중이 절반 이상

- 포스트 코로나 대응 준비기업 비중은 28.2%이며,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하지 못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기업 비중이 54.9%로 절반 이상 차지
- 대응이 불가능한 기업은 16% 정도이며, 2차 하도급기업에서 보다 심각

[그림 10] 포스트 코로나의 대응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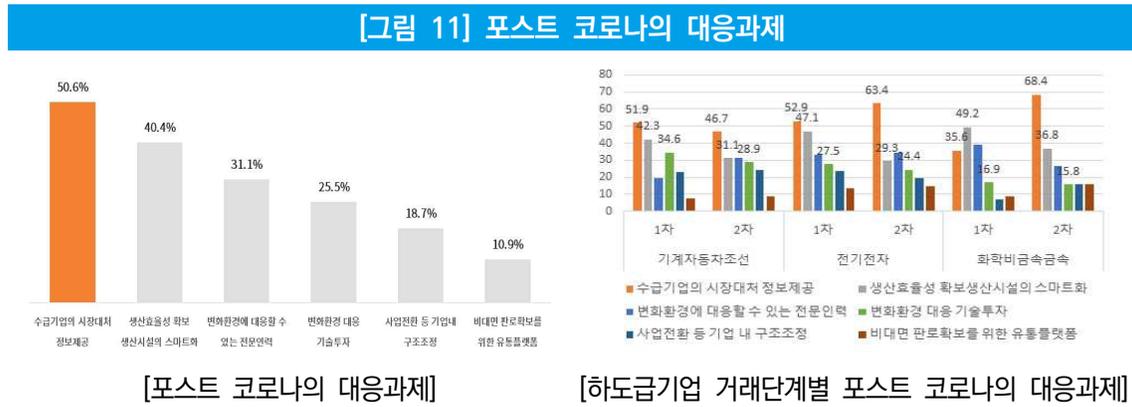


[포스트 코로나의 대응정도]

[하도급기업 거래단계별 포스트 코로나의 대응정도]

■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으로 수급기업의 시장대처 정보제공, 생산시설의 스마트화 등이 핵심 선결과제로 제시**

-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전략으로 수급기업의 시장대처 정보제공이 50.6%, 생산효율성 확보를 위한 생산시설의 스마트화 40.4%,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31.1% 순



5.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방안

■ **전 세계적 경제변화는 국내에도 글로벌 공급가치사슬체계를 대두시키며 네트워킹 확장형 모델기반의 5세대 오픈 이노베이션이 확산되는 분위기**

- 국내 대기업은 내부혁신만으로 시장내 경쟁우위 확보의 한계성을 인지하고 공급처인 1차 하도급기업과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고, 상호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공유함으로써 가치사슬상에서 더 높은 부가가치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등장
- 따라서 대기업과의 정보교류, 기술협력이 활발한 1차 하도급기업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생겨나고 있으며 경영 변화와 투자활동도 증가

〈표 6〉 대중소기업간 네트워킹 공유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 사례

구분	내용
LG-신성델타테크	- 신성델타테크는 LG전자의 하도급기업으로 과거 플라스틱사출에서 시작하여 세탁기, 에어컨, 휴대폰 등의 부품을 납품하였고, 최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생산이 LG전자의 미래 먹거리로 인식되면서 하도급기업에 대해 LG전자가 기술적지원, 정보공유를 통해 기존 백색가전의 부품납품에서 새로운 사업인

구분	내용
	자동차 배터리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먹거리를 마련 중 * 경남 창원외 신성델타테크가 전방산업 성장을 바탕으로 2차전지 사업을 미래 핵심사업으로 인식하고 역량 집중
삼성-솔브레인	- 솔브레인은 지난 1994년 한국의 펙트(Fect)사가 일본의 스텔라 케미파(Stella Chemifa)와 합작, 충청남도 공주에 설립한 합작회사(Joint Venture) - 스텔라로부터 불화수소 혼합 솔루션을 도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회사에 공급 - 삼성전자는 솔브레인을 통해 중국산 저순도 불화수소를 정제, 제품생산에 적합하게 만들 수준으로 만드는 실험에 본격 착수하여 국산화 실현

자료 : 한국경제, “ 신성델타테크, 미래 핵심사업 '2차전지' 역량 집중” 2020.06
 국제신문(NTN) “삼성전자, 솔브레인 통해 불화수소 자체 조달 실험” 2019.09

■ 그러나 2차 이하의 기업은 대응 미흡으로 하도급기업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 대기업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아닌 2차 등 수요자 중심 시장의 정보 부족으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채 시장내 퇴출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
- 신성장 동력이나 미래 산업에 대한 대비, 디지털화와 제조혁신에 대한 적응이 취약한 상황
- 대기업 내부역량 개방을 통한 정보, 기술 등이 2차 3차 하도급기업에게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

■ 협력적 네트워킹 확장형으로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기업 및 정부의 노력 필요

- (시장지향형 기술개발) ① 중소기업기술개발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과제 발굴까지 일련의 과정이 시장의 수요자 중심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R&D 기획화’가 필요 ② 대기업 퇴직인력 활용 등 기술개발 과제 발굴 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한 시장성과 경제성에 대한 평가 참여 및 과제 확정 후 선정과제 수행업체의 멘토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
- (글로벌공급가치사슬(RVC)) ① 확산 대응을 위한 거점형 대·중소기업 협력 기반 마련 ② 대기업 생산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내 공급가치사슬의 매개체로서 지역 거점형 TP 등 활용하여 대기업과의 거래 네트워크 구축기반 마련

- (생산체계의 정보화 도입) ① 업종별 스마트공장 구축 표준 매뉴얼과 정보화 기반 ERP 구축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는 표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② ISO제도 등과 유사한 형태의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구축된 스마트공장에 대해 상시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경영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제도화 기반을 마련 ③ 대기업이 운영 중인 스마트팩토리센터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전문인력 육성과 대기업의 멘토서비스 및 대기업 퇴직인력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대기업 내부역량 개방 확산을 위한 정보플랫폼 구축) 대기업과 하도급기업 및 잠재적 거래기업 간의 양방향성을 확보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플랫폼을 구축
 - 대기업은 내부역량 중 공개 가능한 기술, 시장, 경영 등의 정보를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중소기업은 자기보유 생산제품, 보유특허정보 등을 DB화하고 필요시 정보를 공유하고 플랫폼 내 커뮤니티 공간을 구성하여 상호 간 플랫폼 내의 화상회의 등을 통해 운영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현재 대기업들은 본사 내 대부분 동반성장 운영을 위한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 업무담당자와 연계를 통해 활성화를 추진하면, 정보플랫폼 구축 이후 활성화 기반 마련 요구

참고자료

[국문인용]

- 국제통화기금(2020),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2020.10.13.
- 기획재정부(2020), 『20년 6월 고용동향 분석』, 2020.6
- _____ (2020), 『20년 6월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2020.06., 재정리
- 네이버(2020), 「국내증시현황(코스피, 코스닥)」, 2020.9.
- 백훈(2019),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대기업 내부역량 개방공유 확산방안』, 중소기업연구원
- _____ (2020),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역량 개방을 통한 2·3차 협력 네트워크 확산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 세계은행(2020.06.08.),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
- 심혜정(2020.11), “코로나 공존시대 글로벌 공복망 안정화,”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중앙회(2020), 『중소기업실태조사』, 각 년도 재가공
- _____ (2020), 『경북지역 중소기업 피해사례 실태조사』 2020.02
- 질병관리청(2020.12.03.) “국내 코로나 확진자 월별 변화”
- 한국과학기술평가관리원(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전망 및 유망기술
- 한국은행(2020)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의 영향
- _____ (2020), “2020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동향발표

[영문인용]

- Rothwell(1992). “Successful industrial innovation: Critical factors for the 1990's”,
R&D Management

KOSBI 중소기업 포커스

발행인 : 이동주

편집인 : 이동주

발행처 : 중소기업연구원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 (신대방동 686-70) (07074)

전화: 02-707-9800, 팩스: 02-707-9894

홈페이지: <http://www.kosbi.re.kr>

인쇄처 : 사단법인 나눔복지연합회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연구진)의 견해이며, 중소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